도시관리공단 설립 '탄력'

익산시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설립 후 5년간 7억 8500만원 재정 절감

익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공단이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인정받으면서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로 비용 절감은 물론 서비스 향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공단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시가 제안한 13개 사업을 행안부 지정 법정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의 적합성, 경상수지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분야 5곳 (▲국민생활관,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도시교통 분야 3곳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현수막게시대) 등 8개 사업은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일부 체육시설(함열스포츠센터, 웅포문화체육관, 금마축구공원)과 번호판 제작소, 웅포캠핑장은 법적 요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일부 제외된 체육시설은 공공성 확보와 체육시설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의거 설립 후 공단 대행 사업으로 권고했다.

익산시는 앞으로 공단 설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전라북도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임원과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공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전력'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현황 점검 · 대응방안 모색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10일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황과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 반응에 따라 사업들을 분류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들은 논리를 보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긍정적인 사업들은 타당성을 보강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 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할 주요 신규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스마트 제조공정 테크플렉스 기반 구축사업 ▲VR기반 익산여행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등으로 단계별 논리를 보완해 적극 대응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개설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환경친화도시 구축 분야는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며 "계획된 신규사업 반영과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지자체별로 신청한 사업을 각 부처에서 편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재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나운3동 쓰리고 공유냉장고 2호점 탄생

나운3동의 쓰리고(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공유냉장고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2호점을 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나운3동은 지난해 1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군산시 최초설치한 나운3동 쓰리고 공유냉장고 사업이 지난 9일 미룡동 소재 '붉마을 사회적협동조합(대표:김호연, 성민교회목사)'에서 공유냉장고 2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쓰리고 공유냉장고 2호점은 기존 나운3동에서 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공유냉장고를 관리하고, 기부처를 발굴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등 100% 지역주민 스스로와 민간단체, 성민교회를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가 된다.

'붉마을 협동조합'은 '나운3동의 공유냉장고를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음식 및 식재료를 공유함으로서 먹거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 간의 정을 나누는 등 마을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모습 통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이해 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챌린지를 진행한다.

개교 100년… 1천억 조성 목표

원광대, 개교 75주년 맞아 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챌린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이해 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챌린지를 진행한다.

개교 100년까지 1천억원을 목표로 진행하는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챌린지는 지난 7일 원광대 재직동문교수회(회장 안관수) 1,000만원에 이어 수학교육과 김용섭 교수의 1,00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릴레이 출발을 알렸다.

안관수 회장은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대학의 현실 속에서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에 나섰다"며 "릴레이 기부를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릴레이 기부 챌린지 시작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1인 1계좌 1만원 소액기부로 조성하는 개벽원광발전기금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 열리는 개교 75주년 기념식에서 '원광 100년, 개벽원광발전기금 1천억원 조성 비전 선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국가산업단지 방문 소방안전교육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산업시설(주식회사 광전자)를 찾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난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사고사례 및 대피요령, 상황전파,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화기와 자체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초기 대응하는 방법과 화재대피요령,상황전파의 중요성, 완강기 사용법, 심정지 환자발생 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네킹을 활용한 교육 및 제세동기 사용법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미희 서장은 "익산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연령별·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전 개관식 개최

군산시는 10일 전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민숙)의 이전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강민숙 전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관식 행사는 코로나 19 안전수칙을 준수,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전 및 확장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전한 주소는 전북 군산시 백토로 202, 2층(나운동)이다.

강민숙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군산시의 지원으로 사례 대상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배달의 명수' 5월 가족사랑이벤트 추진

군산의 대표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Together 가족사랑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 가족들이 배달의 명수와 함께 따뜻한 한끼를 같이하며, '가족과 함께 한끼!', '가족과 함께 경품!'으로 더욱 즐겁고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래며 준비됐다.

행사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주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벤트 기간 종료후 추첨을 실시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 경품은 갤럭시탭(태블릿) 1대, 닌텐도 스위치 2대, 미술도구세트 10개, 어간장세트 20개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 명수' 페이스북과 어플,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이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배달의 명수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